

# 발해건축사 연구 동향과 콕사로프카1 성터 건물지의 성격

송 기 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주제어 : 발해, 24개석, 목탑, 온돌, 콕사로프카 1 성터, 종묘

## 1. 발해사의 시각

발해는 698년부터 926년까지 통일신라와 함께 南北國時代를 열었던 북방 국가이다. 高王 大祚榮(698~719, 이하 재위 연도)이 건국한 뒤에 2대 武王(719~737), 3대 文王(737~793)을 거치면서 발전기를 맞이했다가 4대 왕(793)부터 9대 簡王(817?~818)까지 내분기를 겪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며, 10대 宣王(818~830)부터 중흥과 융성을 이루어 마침내 당나라로부터 海東盛國이란 영예를 얻었다. 그렇지만 말년에 내분을 겪고 거란 침략을 맞아서 마침내 926년 정월 15대 왕, 228년에 걸친 역사가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었다.

통일신라는 8세기까지 전성기를 누리다가 9세기에 점차 와해되어갔다. 발해는 8세기에 발전기를 누리다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반에 일시 위축되었고 818년 이후에 새롭게 융성기를 맞이하여, 통일신라의 성쇠 과정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남북국 및 당나라가 각각 보인 발전 궤적의 차이는 아쉽게도 발해 융성기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

기 어려운 원인을 제공하였다. 현전하는 기록은 발해인의 손으로 직접 적은 것이 아니라 주변국자인 당나라, 통일신라, 일본에서 전한 것이다. 그런데 발해가 융성기를 누렸던 9세기는 당나라나 통일신라 모두 혼란에 빠져 있던 시기라서 기록을 남길 수 없었다. 이리하여 단지 일본과 교류한 자료만이 일부 전해질 뿐이다. 그 결과 8세기 발전기의 모습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9세기 융성기의 모습은 오히려 막막한 상황이 되었다.

발해의 건국 과정에 고구려 유민들이 참여하였기에 이들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통일신라에 대해서 감정이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大祚榮은 건국하자마자 신라에 사신을 보내 大阿漚의 벼슬을 받았다. 이후에도 양국 사이에는 갈등을 빚기도 했고 친선 교류를 하기도 했으니, 200여년간 대립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한편으로 통일신라는 당나라에 대해서 事大의 禮를 다한 제후국이었던 반면에, 발해는 당나라로부터 조공과 책봉을 받는 제후국이면서 내부적으로는 皇帝國을 지향했던 外王內帝의 국가였다. 최근에 중국 吉林省 和龍市 龍頭山高분군 龍海구역에서 발굴된 묘

\* 교신저자, 이메일: songkh@snu.ac.kr

지명에서는 발해 지배자를 왕이라 하면서 배우자는 皇后라 부른 것이 확인되었으니, 이것도 외왕내제의 한 증거가 된다. 이런 체제는 후에 高麗가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sup>2)</sup>

발해의 주민은 주로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발해 영역은 지금의 중국 동북3성, 연해주 및 북한에 걸쳐 있었다. 이렇게 민족적으로 이중성을 띠었고 영역도 현재 3개국에 걸쳐 있게 되니,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발해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림 1> 조익형 관식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발해를 말갈계 국가로 여기고 있는 반면에 남북한과 일본은 고구려계 국가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발해는 분명히 고구려 유민이 주축이 되었던 나라였다. 필자는 이를 증명하는 몇 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sup>3)</sup> 특히 龍海구역에서 발굴된 石室封土墓의 고분 양식, M14호묘에서 출토된 鳥翼形 冠飾(그림 1)은 발해 최상층이 고구려계 인물이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말갈계 국

가론이 대세를 이룬다. 중국 연구자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고구려가 중국사라고 주장하면서도 발해사를 언급할 때에는 고구려 계승국가임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수 피지배층뿐 아니라 지배층마저도 말갈족이 주축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러시아에서는 연해주의 고고학 발굴을 논의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데, 연해주 지역은 기본적으로 말갈족이 활동하던 변방이었다. 이곳을 중심에 놓고 발해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갈계 국가란 결론이 도출되지만, 이것은 발해 중심지의 사정을 도외시한 문제가 있다. 더구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근래에 중국의 견해를 주로 좇는 경향이 있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나름의 연구 성과를 중국과 러시아에 적극 알리는 것도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 2. 건축사 연구 동향

문헌 자료가 거의 없는 만큼 발해 건축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는 발굴을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아직은 제대로 발굴된 유적이 적어서, 그만큼 발해 건축사 연구도 지지부진한 편이다. 발해 유적으로는 고분, 성터, 절터, 생활유적 등이 있지만 아직은 고분에 집중되어 있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준비하면서 上京城, 西古城, 八連城을 발굴하여 최근에 보고서가 간행되기 시작하면서<sup>4)</sup> 성터 자료가 다소 증

2) 송기호, 「渤海國의 位相」, 『渤海政治史研究』, 일조각, 1995.

3) 송기호,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제1장, 제9~12장 참조.

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化局·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和龍市博物館 편저, 『西古城-2000~2005年度渤海國中京顯德府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2007.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渤海上京城 -1998~2007年度考古發掘調查報告-』, 上·下, 文物出版社, 200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吉林省琿春市八連城內城建築基址的發掘」 『考古』, 2009-6.

가했다. 고분이나 성, 절 등의 축조도 크게 보면 건축 행위이지만, 아직은 정보가 많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단순한 자료 소개를 제외하면 발해 건축사의 연구 논문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발해 건축이 한국건축사에서 제자리를 잡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와서이다. 1972년에 간행한 윤장섭의 『한국건축사』 초판에는 발해 건축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가, 1998년에 간행한 신판에서 처음 한 장으로 신설되었다.<sup>5)</sup> 그는 이보다 2년 전인 1996년에 간행한 책에서도 ‘발해 건축’ 항목을 신설했다.<sup>6)</sup> 주남철은 남북국시대를 설정하여 통일신라와 발해의 건축을 나란히 기술하였고,<sup>7)</sup> 대한건축학회에서 펴낸 건축 통사에서도 ‘발해시대’를 한 장으로 독립시켰다.<sup>8)</sup> 그렇지만 아직도 발해 건축이 들어 있지 않는 통사도 있다.<sup>9)</sup> 이처럼 발해 건축이 한국건축사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들 통사의 서술 내용이 단순히 자료 소개에 그치거나,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북한의 견해를 채택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내외를 통틀어 보아도 발해건축사 연구는 초보 단계에 있다. 아직 발굴 유적이 많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고, 그동안 건축사 연구자의 참여가 적었던 데도 원인이 있다. 초기 연구자로서는 북한의 장상렬<sup>10)</sup>이 있다.

그의 여러 연구 가운데서 上京城 石燈을 택하여 각 부분의 길이를 재서 營造尺이 고구려와 동일하게 35cm임을 밝히려 한 것이 눈에 뜨인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일본의 村田治郎은 상경성 건물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여 발해의 영조적으로 고구려적보다는 당적을 사용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sup>11)</sup> 앞으로 이에 대한 건축학계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장상렬은 또 정자식 건물의 기둥, 柱頭, 지붕 구조가 석등에 표현된 것에 착상하여 발해 건물을 복원하였는가 하면, 발해 건축의 고구려로부터의 계승성과 고려에의 계승성을 밝히려 하였다. 북한에서는 근래에 한용걸,<sup>12)</sup> 장철만<sup>13)</sup>의 연구도 발표되었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학문적 엄밀성이 크게 떨어진다.

장상렬은 高句麗尺과 고구려 건축물을 토대로 상경성 건물들의 외관을 복원하려 시도하였는데, 이에 반해서 중국의 張鐵寧은 唐尺과 長安城 등의 당대 건축물을 토대로 궁전 건물을 복원하려 하였다.<sup>14)</sup> 중국학자들은 姜華昌의 견해처럼 발해는 당나라 예속국으로서 전적으로 당나라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연구하고 있다.<sup>15)</sup> 이에

문집』 3, 사회과학출판사, 1971.

장상렬, 「발해의 도시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3.

장상렬, 「발해의 건축」, 『발해사연구논문집』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장상렬, 「발해 상경룡천부에서 표현된 도시계획 방법과 그 고구려적성격」, 『조선고고연구』, 1998-2.

11) 村田治郎, 「渤海王國の造營尺」, 『日本建築學會研究報告』 15, 1952.

12) 한용걸, 「발해건축의 고구려적성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7-1.

한용걸, 「발해건축의 몇가지 특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8-4.

13) 장철만, 「발해의 성곽과 건축」,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진인진, 서울, 2009.

14) 張鐵寧, 「渤海上京龍泉府宮殿建築復原」, 『文物』, 1994-6.

15) 姜華昌, 「渤海上京龍泉府與唐長安城建築布局的比較」, 『

5) 尹張燮, 『韓國建築史』, 東明社, 1972 초판 및 1992년 개정판.

尹張燮, 『新版 韓國建築史』, 東明社, 1998.

6) 尹張燮, 「渤海建築」, 『韓國의 建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7)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8) 대한건축학회 편, 『한국건축사』, 기문당, 1996.

9) 장경호, 『韓國의 傳統建築』, 문예출판사, 2004.

10) 장상렬, 「발해상경동들의 체인세」, 『고고민속』, 1967-3.

장상렬, 「발해건축의 역사적위치」, 『고고민속논문집』 3, 사회과학출판사, 1971.

「부록 : 몇개의 발해건축에 대한 외관복원」, 『고고민속론

따라 처마나 용마루의 곡선, 기둥의 배흘림 등에서 서로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고구려 건축에서 계승된 것만 강조하고, 중국에서는 당나라 건축에서 계승된 것만 강조하여 다른 여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楊鴻勳처럼 한국 온돌 건물을 기준으로 삼아서 상경성의 西區寢殿址 건물을 복원해본 사례도 있다.<sup>16)</sup>

발해 도성은 기본적으로 당나라 방식의 평지성 구조를 따르고 있어서, 상당한 부분 당나라 양식을 차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상경성 제2궁전지가 전면 19칸, 측면 4칸에 달하여 장안성의 최대 건물인 승원殿의 11칸 규모를 뛰어 넘는 사실<sup>17)</sup>은 제후국으로서 전면적으로 당나라만 추종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사실 온돌 건물지, 연화문 와당, 주초장식와 등에서 고구려 계승성이나 독자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두 견해 가운데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까운지도 앞으로 건축학계에서 규명해주어야 할 것이다.

상경성의 평면 구조를 서고성, 팔린성과 비교하고 중원의 사례를 참조하여 현재의 궁성 규모, 황성 규모, 외곽성 규모의 세 단계에 걸쳐 축조되었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경성 구조는 대이진 때에 와서 완성된 것이란 주장도 있다.<sup>18)</sup> 또 방학봉 등은 24개석 유적

을 비롯하여 발해 건축과 관련된 자료와 논증을 단행본으로 엮어냈다.<sup>19)</sup> 이밖에는 발해 건축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sup>20)</sup>

남한에서는 李秉建의 연구가 많다. 그는 중국측 연구를 편저로 소개했고,<sup>21)</sup> 석·박사 논문을 포함하여 19편에 이르는 글을 발표했다.<sup>22)</sup> 이밖에도 다른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

北方文物』, 1988-2.

- 16) 楊鴻勳, 『宮殿考古通論』, 紫禁城出版社, 2001, 527~529쪽.
- 17)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渤海上京城第四階段考古發掘主要收穫』, 『文物』, 2009-6, 52쪽.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渤海上京城 -1998~2007年度考古發掘調查報告-』, 上·下, 文物出版社, 2009, 226쪽.  
함원진은 실제로는 정면 13칸 67.03m, 측면 3칸 28.22m 규모이고(楊鴻勳, 앞책, 426쪽), 참고로 상경성 제2궁전지의 기단은 정면 92m, 측면 22m 규모이다.
- 18) 劉曉東·魏存成, 『渤海上京城營築時序與形制淵源研究』, 『中國考古學會第六次年會論文集(1987)』, 文物出版社, 1990.  
劉曉東·魏存成, 『渤海上京城主體格局的演變 -兼談主要宮殿建築的年代-』, 『北方文物』, 1991-1.

19) 방학봉, 『발해건축연구』, 연변대학출판사, 1995.  
方學鳳·鄭永振 主編, 『渤海貨幣及二十四塊石論著匯編』, 渤海史論叢 下卷, 吉林人民出版社, 2000.

20) 魏存成, 『渤海的建築』, 『黑龍江文物叢刊』, 1984-4.  
魏國忠, 『渤海的建築』, 『黑龍江建設志通訊』, 資料選輯之二, 1986. ; 『東北民族史研究』 2, 中州古籍出版社, 1995 재수록.

李殿福, 『渤海國的建築與造形藝術』, 『清溪史學』 6, 1989.  
李正鳳, 『渤海國佛教建築類型』, 『博物館研究』, 1996-3.

21) 이병건 편저, 『발해건축의 이해』, 백산자료원, 2003.

22) 이병건, 『발해시대 사찰건축 연구』, 건국대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1. 12.

李秉建, 『발해건축연구 -24개돌유적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6, 발해건국 1300주년(698-1998), 1999.

이병건, 『발해 24개돌유적에 관한 건축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1. 6.

李秉建, 『한국·중국·일본·러시아의 발해건축 연구동향』, 『白山學報』 62, 2002.

李秉建, 『발해 강동 24개돌유적의 추정 복원안 연구』, 『白山學報』 65, 2003.

이병건, 『발해 24개돌유적의 건축형식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19-6, 대한건축학회, 2003.

이병건, 『유적을 통해서 본 발해건축의 독자성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19-10, 대한건축학회, 2003.

이병건,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의 발해건축 연구현황 및 문제점 연구』, 『北方史論叢』 8, 2005.

이병건, 『발해 사찰유적의 건축형식 연구』, 『高句麗研究』 22, 2006.

이병건, 『渤海 建築遺蹟에 關한 南韓의 研究成果』, 『동북아역사논총』 16, 동북아역사재단, 2007.

이병건, 『渤海建築에 關한 北韓의 研究成果』, 『高句麗研究』 26, 고구려연구회, 2007.

李秉建, 『발해 도성과 궁전유적의 건축형식 연구』, 『白山學報』 78, 2007.

이병건, 『고고학을 통해서 본 발해 건축문화의 정체성』, 『高句麗研究』 29, 고구려연구회, 2007.

이병건, 『발해의 교통로와 24개돌유적의 기능』, 『발해 5경과 영역 변천』, 동북아역사재단, 2007.

이병건, 『동북아시아에서 발해 전담의 건축적 의미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1, 2008.

이병건, 『화진 소밀성과 화룡 서고성의 건축형식 비교 연구』, 『高句麗渤海研究』 34, 2009.

Lee Byeong Gun, 『New Perspective on the Gangdong

문들이 더 있다.<sup>23)</sup>

러시아 연해주에서도 발해 건물지가 발견되지만 아직 본격적인 연구는 없다. 다만, 여진 건축에 관한 엔.게. 아르체미예바의 연구는 최근에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되었는데,<sup>24)</sup> 발해 건축이 연해주에서 어떻게 계승되어 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집이 된다.

### 3. 몇 가지 논점

이상 대체적인 연구 성과를 정리해보았으니, 이제부터는 발해건축사와 관련된 몇 가지 논점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발해 24個石 유적에 관한 연구이다.<sup>25)</sup> 24개석 유적이란 주초가 1열에 8개씩

3열로 배치된 건축지(그림 2)로서 발해의 간선 교통로상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된다. 1950년대에 처음 확인된 뒤로 지금까지 12개 유



<그림 2> 강동 24개석

적이 조사되었는데, 구조와 규모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서 중앙에서 일정한 표준에 따라 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평균 크기는 정면 9.34m, 측면 7.57m로서 22평 정도이며, 주초 높이는 대략 0.7~0.8m이고 주초 간격은 평균 1.31m로 좁은 편이다.<sup>26)</sup>

주초의 배치로 보아서 건물 바닥을 지면에서 떨어지게 지은 다락식 건물이었을 것이다. 정식으로 발굴되지 않은 채 건물 성격에 대해서 역참시설, 기념 건축물, 장례 관련 건

24 Stones Relics which has the Fuel hole and the Chimney fuel in Dunhua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Ondol』, Vol. 4 No.1, International Society of Ondol, 2009.

이병진, 「발해 영광담과 한강이남 전담의 건축형식 비교연구」, 『高句麗渤海研究』 38, 2010.

이병진, 「건축적 관점에서 살펴본 발해유적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연구성과」, 『2011 속초 발해의 꿈 프로젝트 한·중·러·일 발해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1. 10. 8.

23) 申榮勳, 「渤海國의 塔塔 특히 靈光塔」, 『建築歷史研究』 2-1, 한국건축역사학회, 1993.

金慶彪, 「渤海史 論爭의 建築史의 解析」, 『忠北大建設技術論文集』 15-2, 1996.

徐廷昊, 「渤海時代 建築의 復元 可能性에 대한 小考」, 『高句麗研究』 7, 1999.

李康根, 「渤海 上京 龍泉府의 寺院建築」, 『高句麗·渤海研究』 II, 강좌 미술사 14, 발해미술특輯號, 1999.

김진성, 「발해 中京顯德府 西古城址의 정원 유적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3, 한국전통조경학회, 2007.

이영·한경호, 「남북국시대 동아시아 고대도시계획의 비교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 11.

양정석, 「空間構造를 통해 본 新羅의 五小京과 渤海의 五京」, 『역사와 담론』 53, 호서사학회, 2009

김경표, 『발해건축사론』, 기문당, 2010

24) N.G.아르체미예바 지음, 정석배 옮김, 『연해주 여진의 주거 건축』, 학원문화사, 2011.

25) 앞에 소개한 方學鳳·鄭永振 主編의 책에 주요 논문이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 다음 연구를 추가할 수 있다.

리준걸, 「새로 발굴된 24개돌」, 『력사과학』, 1984-2.

한인덕, 「김책시 동흥리 24개 돌유적」, 『조선고고연구』, 1991-4.

李健才, 「二十四塊石考」, 『北方文物』, 1992-2.

孫秀仁, 「渤海國二十四塊石之謎解析」, 『北方文物』, 1993-4.

이병진, 앞논문 1999, 2001 및 2003.

방학봉, 「발해 24개 돌 유지에 대하여」, 『발해의 주요교토로 연구』, 연변인민출판사, 2000.

尹鉉哲, 「關於渤海國의二十四塊石遺址」, 『渤海史研究』 9, 延邊大學出版社, 2002.

尹鉉哲, 「吉林省興隆縣興隆村的二十四塊石遺址」, 『北方文物』, 2002-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 『吉林敦化市江東·林勝“二十四塊石”遺跡的調查和發掘』, 『考古』, 2009-6.

26) 이병진, 앞논문, 225쪽, 2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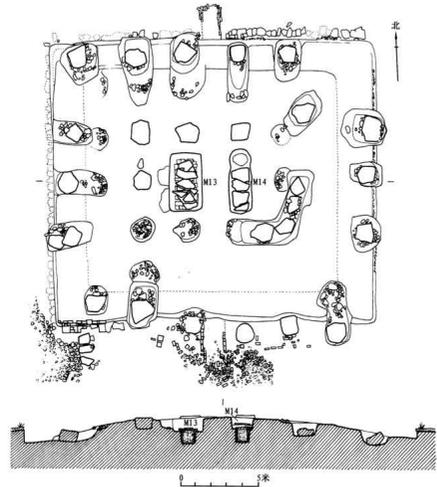
축물 등으로 추정만 해왔는데, 지방의 교통로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주로 역참과 관련된 창고 시설로 보아왔다.

그런데 2005년에 江東 24개석을 발굴하고 林勝 24개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다.<sup>27)</sup> 두 유적에서 전형적인 발해 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金代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수막새(檐頭板瓦)가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이다. 따라서 아직은 발해 유적인지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발해 때에 사용된 뒤에 금나라 때에 다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24개석 유적이 발해 지역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강동 24개석 서측에서는 쪽구들 유구가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24개석과 병존한 것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창고 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보고자의 견해와 달리 볼 여지도 있다. 쪽구들의 고래가 24개석 쪽으로 뺏다가 점차 낮아져 사라진다는 것은 이미 유적이 깎여나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래 쪽구들 유적이 있다가 이를 제거하고 그 위에 24개석이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바닥이 들린 다락 건물에 쪽구들을 시설하는 것은 부자연스런 일이다. 아마 쪽구들과 강동 24개석은 선후로 만들어진 것이 옳을 것이다.

둘째, 墓上 施設物에 관한 연구이다. 六頂山고분군을 보건대 石室封土墓인 M2(정혜공주묘)의 봉토에서 수키와 잔편이 다량 출토하였고,<sup>28)</sup> 土石混築墓인 M209와 M210의 봉토에서도 상당량의 수키와와 약간의 암키와

가 출토하였다.<sup>29)</sup> 둥근 봉토가 만들어졌으므로 그 위에 건물을 세웠을 가능성은 적고, 고구려 太王陵의 경우처럼 봉토 위에 기와를 덮는 형식을 취했을 것이다.<sup>30)</sup>



<그림 3> M13·14호 및 묘상 건물지(『考古』 2009-6)

三陵屯 1호묘나 河南屯 고분에서는 瓦片과 더불어 무덤 위에서 柱礎가 확인되었고,<sup>31)</sup> 龍頭山高분군 龍海구역 M13-14호 상부에서는 주초 건물지가 정연하게 드러났다(그림 3).<sup>32)</sup> 종전에는 무덤 위에 세운 건물지라고 단순히 추정해왔지만, 용해구역에서의 발굴 결과는 이 건물이 木塔이었을 것이란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sup>33)</sup> 그렇다면 용해구역의 貞

27)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 『吉林敦化市江東、林勝“二十四塊石”遺跡的調查和發掘』, 『考古』, 2009-6.

28) 王承禮, 『敦化六頂山渤海墓清理發掘記』, 『社會科學戰線』, 1979-3, 201쪽

2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六頂山與渤海鎮—唐代渤海國的貴族墓地與都城遺址—』,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7, 26~27쪽.

3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著,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查報告—』, 文物出版社, 2004, 335쪽.

31) 東亞考古學會, 『東京城—渤海國上京龍泉府址의發掘調査—』, 1939, 39쪽. 郭文魁, 『和龍渤海古墓出土的幾件金飾』, 『文物』, 1973-8.

3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2009-6, 31쪽.

33) 송기호, 『용해구역 고분 발굴에서 드러난 발해국의 성격』, 앞래 2011, 360~364쪽.

孝公主 무덤(M1) 및 M10호 상부에서 발견된 博塔의 성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목탑에서 벽돌탑으로 전환된 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발해 탑으로 알려진 靈光塔이나 馬滴達塔 아래에서도 무덤 모양의 시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이들이 사원의 탑이 아니라 무덤탑이었을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일부 발해 무덤에는 상부에 기와를 덮거나 목탑 또는 전탑을 세웠다. 이런 습속의 기원에 대해서 “무덤 위에 집을 지어 비에 젖지 않게 한다”고 한 勿吉<sup>34)</sup>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 중국학자들은 이 기록을 토대로 말갈족의 전통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고구려나 백제 무덤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므로<sup>35)</sup> 고구려로부터 전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무덤 위에 탑을 세운 사례는 당나라에서도 확인되고, 통일신라에서는 玉龍寺의 발굴 결과에서 보듯이 승려 무덤 위에 浮屠를 세운 사례도 많이 있어, 당나라로부터 배워온 측면도 있다.

셋째, 濫突에 관한 연구이다. 온돌은 고대적인 ‘쪽구들’과 이보다 늦게 등장한 전면온돌인 ‘온구들’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발해 유적에서는 쪽구들만 발견된다. 그런데 발해에서는 이런 유구가 도성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고루 발견된다. 근래에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생활유적에서 발굴된 170기 주거지 가운데 62기에 쪽구들이 시설되어 있었다.<sup>36)</sup> 발해 쪽구들은 기본적으로 고구려로부터 계승된 것으로서, 일찍부터 고구려의 계승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주목받아 왔다.<sup>37)</sup>

필자는 한반도 북부와 연해주, 만주 일대에서 발굴된 고대 쪽구들 자료를 망라하여 고구려 계승성을 분명하게 증명했다.<sup>38)</sup> 쪽구들은 두만강 이북에 살던 北沃沮인들이 발명한 것이다. 그런데 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북방으로는 전파되지 않고 오히려 남쪽의 한반도로 확산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고구려로 유입되었고, 내륙을 통하여 한반도 중부 지역에도 유입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다를 통하여 경상도 해안 일대로도 전파되었으니, 시기가 가장 이른 사천 늑도를 비롯하여 포항 호동, 부산 기장 가동, 진주 평거동 등에서 다량의 쪽구들이 발굴되었다.

발해의 쪽구들은 주거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첫째, 발해 쪽구들은 구조면에서 고구려 쪽구들을 발전시켜 다음 시대로 넘겨주는 역할을 했다. 고구려 쪽구들은 ㄱ자형 평면에 외고래가 주류를 이루고, 발해 쪽구들은 ㄱ자형 두 고래가 주류를 이룬다(그림 4, 5). 한반도 중남부에서는 고려 초기까지도 외고래가 대세인 점을 감안하면, 발해인이 다굴 고래를 보급시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발해는 이민족인 女眞族에게 쪽구들을 전수하여, 훗날 만주에서 炕이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발해가 멸망하기 전까지 쪽구들 사용 집단은 훗날 한민족의 범위에 한정되었다. 북옥저와 삼국, 남북국에서만 쪽구들이 사용된 것이다. 일본에서도 쪽구들 유구가 발견되었지만, 어디까지나 한반도로부터 건너간 이주민들이 남긴 것이다.

34) 『魏書』, 권100, 勿吉國傳 「其父母春夏死, 立埋之, 冢上作屋, 不令雨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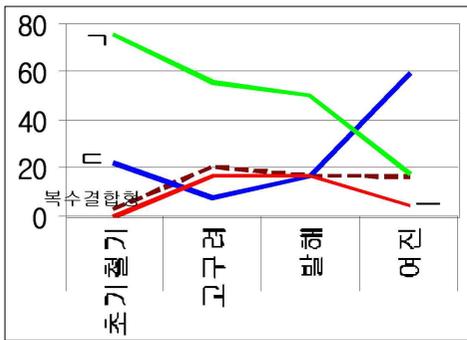
35) 송기호, 『六頂山 古墳群과 건국집단』, 앞책 2011, 28~29쪽.

36) 송기호, 『발해 쪽구들의 유래』, 앞책 2011, 334쪽, 339~344쪽 표.

37) 三上次男, 『高句麗と渤海 -その社會・文化の近親性-』, 『末永先生古稀記念古代學論叢』, 1967. ; 『高句麗と渤海』, 吉川弘文館, 1990 재수록.

38) 송기호, 『한국 고대의 쪽구들 -북옥저, 고구려, 발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그런데 발해가 멸망한 뒤에 발해인 대다수는 遼·金나라로 흡수되었다. 이들이 쪽구들 문화를 女真人에게 전해주었으니, 금나라, 청나라 및 현재의 만주족이 쪽구들을 사용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다. 특히 발해 쪽구들을 계승한 금나라 쪽구들은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 ㄷ자형 세 고래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다만 한반도에서는 대전 상대동 유적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 온구들로 전환하는 데 비해서, 만주 지역에서는 끝까지 쪽구들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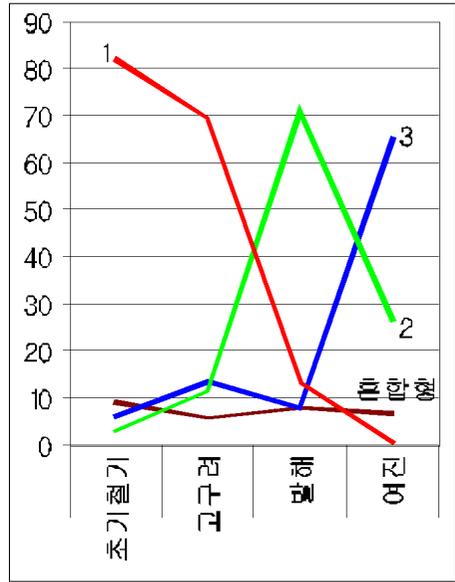
<그림 4> 쪽구들 평면의 변화

몽골의 친톨고이 유적에서도 요나라 시대의 쪽구들이 발굴되었는데,<sup>39)</sup> 거란족은 쪽구들을 사용하지 않아 연구자의 눈길을 끌었다. 결국 이 쪽구들은 발해 멸망 후 이곳에 강제 이주된 발해유민이 축조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문헌 기록에는 없지만 쪽구들 유구를 통하여 발해인이 이곳까지 끌려간 정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지배층에서 쪽구들을 사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온돌은 조선 초기까지도 지배층의 문화는 아니었다. 『舊唐書』나 『高麗圖經』의 기록을 보면, 분명히 가난한 서민들의 문화였다. 삼국 모두 도성이나 궁전지에서는

39) 오치르, 「몽골과 동아시아의 교류(10~11세기)」, 『발해와 동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8. 7. 2~3.

거의 쪽구들이 발견되지 않고, 고구려 벽화에서도 부뚜막이나 부엌은 있을지언정 쪽구



<그림 5> 쪽구들 고래수의 변화

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고구려계 사람들이 발해를 건국하면서 발해 궁전지에서도 쪽구들이 도입되었다. 이렇게 최고지배층이 쪽구들을 사용한 것은 발해와 조선뿐이었다.

발해는 궁전에 ㄷ자형 평면을 한 쪽구들 건물을 특징적으로 건축하였다. 현재 상경성, 서고성, 팔련성의 궁전지에서 발견된 이 건물지는 내부에 쪽구들을 시설하고 건물 뒤쪽으로 두 개의 굴뚝이 나간 형태를 띤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집안 동대자 유적이 있는데, 이것은 국내성에서 발견된 유일한 쪽구들 유적이다. 따라서 이 유적은 전형적인 고구려 건물로 보기에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최근에 이 유적의 瓦當을 분석한 연구에서 5세기 말 이후에 초축되어 발해까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 참고가 된다.<sup>40)</sup>

넷째, 최근 몇 년간 러시아 연해주 옥샤로

40) 姜賢淑, 「中國 吉林省 集安 東台子遺蹟 再考」, 『한국고고학보』 75, 2010.

프카1 성터에서 발굴된 건물지는 발해 건축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해주었다.<sup>41)</sup> 이 유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러시아 연구자와 함께 2008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 공동으로 발굴했고,<sup>42)</sup> 장차 추가로 발굴될 예정으로 있다.

콕샤로프카1 성터는 사다리꼴에 가까운 사각형으로 전체 둘레가 1,645m, 잔존 성벽 높이는 4~6m이고, 내부 면적은 1헥타르에 이른다. 그 규모로 보건대 발해 15부의 하나인 安邊府의 소재지로 추정된다. 성 내부의 북쪽 중앙에서 발견된 건물지는 동서 90m, 남북 70m 정도의 장방형 담장과 함께 확인되었다. 2011년까지의 발굴로 7개의 건물지가 담장 내부의 북쪽 부분에서 동서로 나란히



<그림 6> 콕샤로프카1성터 건물지(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노출되었다. 건물 臺地는 인공적으로 성토하여 조성했다. 다만 남쪽의 마당과 담장은 아직 발굴되지 않아 전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쪽의 1호부터 동쪽으로 7개 건물이 약 0.8~1m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그림 6). 다만 다수의 토기가 출토된 3호와 4호 사이는 1.6~2m 정도로 넓다. 매 건물은 북쪽으로 굴뚝이 뻗어 있어서 由자형 평면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발해 궁전지에서 발견된 曲자형 평면과 유사하다. 건물 남쪽에 출입문 시설이 있고, 내부에는 동서 양쪽 벽 중간 부근에 아궁이가 각각 하나씩 시설되고, 여기서 출발한 두 고래가 북벽으로 뻗어 있고, 북벽 중간에서 서로 만난 뒤에 두 고래로 굴뚝까지 이어진다. 각 건물지의 출입구에서 뒷편 굴뚝까지의 거리는 17.5m 정도로 동일한다.

개별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5칸으로 서로 구조가 동일하고 건물 앞줄은 동일선상에 맞추어져 있으나, 뒷줄은 조금씩 변하고 건물 폭도 다르다. 이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크기의 건물로 분류되니, 제일 큰 것은 4호와 5호이고, 그 다음은 3호와 6호이고, 마지막은 1, 2, 7호이다. 1·2호 건물지는 동서 12m, 남북 10m로서 36.4평 규모이고, 3호 건물지는

41) 발굴 자문위원으로 현장을 방문할 수 있었기에 이 글을 쓸 수 있었으며, 또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배려로 정식 보고 전에 이 글을 발표할 수 있었다. 모두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감사를 표한다.

42) 문화재청 보도자료, 『발해의 고구려 전통 계승과 동북부 영역을 보여주는 ‘발해 왕성급 유적(城)’발굴』, 2008. 10. 16.

문화재청 보도자료, 『발해 평지성 중요건물지군의 공간배치 확인』, 2009. 9. 23.

문화재청 보도자료, 『고구려 전통의 발해 건물지 및 발해 최초의 그릇받침(器臺) 확인』, 2010. 11. 10.

문화재청 보도자료, 『발해 지방 거점 유적, 그 모습을 드러내다』, 2011. 10. 28.

김동훈, 『2008~2010 연해주 콕샤로프카-1 발해평지성 발굴성과』, 『2010년 국내·외 유적조사 성과화 활용』, 국립문화재연구소, 11. 26.

Клюев Н.А., Малков С.С., Якупов М.А.,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городища Кокшаровка-1 в При море в 2008-2009 гг.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проблемы, поиски и решения, Владивосток, 2011 ; 클류예프 엔.아., 말코프 에스.에스., 야쿠포프 엠.아., 『2008~2009년 연해주 콕샤로프카-1 성터 조사 결과』, 『고대 및 중세의 러시아 극동 -문제, 조사, 해결-』, 블라디보스톡, 2011. 슬렌цов И.Ю., Ким Дон Хун, Городище Кокшаровка-1: особенности строения северной платформы (по данным стратиграфии)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проблемы, поиски, решения, Владивосток, 2011 ; 슬렘 초프 이.유., 김동훈, 『콕샤로프카-1 성터: 북쪽 臺地の 구조적 특징 -층위 자료에 의함-』, 『고대 및 중세의 러시아 극동 -문제, 조사, 해결-』, 블라디보스톡, 2011.

12.5m, 10.2m로서 38.6평 규모이고, 4호 건물지는 13.5m, 12m로서 49.1평 규모이다. 가운데 건물이 크고 좌우로 갈수록 작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건물 사이에 위상의 차이가 있고 가운데 건물이 제일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발굴 과정에서 기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서 역새나 띠 같은 것으로 지붕을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칠한 벽체 조각이 발견되었으므로 벽은 회칠로 미장했을 것이다.

담장은 북반부만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북동쪽 모서리 부근의 북벽에서 출입문이 하나 확인되었다. 출입문에는 판석이 깔려 있었고, 가까이 주초로 보이는 판석이 두 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서 四柱式 문이 설치되었던 가능성도 보인다.

건물이 대규모여서 내부의 쪽구들도 무척 크다. 쪽구들의 전체 길이는 15m에 이를 정도로 길다. 쪽구들의 폭은 1.8m 내외이고, 고래의 폭은 30~35cm이다. 방에서 쪽구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30㎡로 약 9평 정도이다. 아궁이는 직경 80~150cm이고, 굴뚝 자리는 대략 3.5×3.5m 크기의 커다랗고 둥근 석축으로 남아 있다.

이런 대형 건물이 발해의 중심지가 아닌 동북쪽 변경에서 발견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담장에 둘러싸여 7개의 건물이 나란히 발견된 것은 유례가 없다. 따라서 이 건물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발해건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 건물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이 유적에서는 靺鞨 토기나 女眞 토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08년에 러시아 학자들이 이 건물지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에서 시굴했을 때에 하위층에서 말갈토기편이 나온 것과 비교된다. 이것은 발해 핵심부에

서 멀리 떨어진 곳이기는 하지만 首領으로 불린 지방 토착세력이 축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사실 이 건물지에서는 고구려의 전통을 지닌 가로띠 손잡이가 달린 泥質系의 토기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와 아울러 중국 五代에 越州窯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참외형 靑磁注子, 그리고 백자편도 출토되어, 중국의 고급 그릇도 사용된 장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 그릇받침(2010,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둘째, 유적의 범위에 비해서 출토된 유물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특히 시루 등의 일상 유물이 일부 출토되기는 했지만, 제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통형 그릇받침[器臺]이 발해 유적에서 출토된 것이 중요하다(그림 7). 3호와 4호 건물 사이에서 다량의 토기편이 집중적으로 발굴되었는데, 그 가운데 그릇받침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복원된 그릇받침은 높이가 62cm에 이를 정도로



<그림 8> 魂瓶(김길식 교수 제공)

크고, 5단에 걸쳐 투공이 장식되어 있다. 이것은 이 건물지 제사용으로 이용되었고, 3호와 4호 사이에 祭器를 보관하는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이 그릇받침이 제사용이었을 가능성은 遼代의 魂瓶과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sup>43)</sup> 예를

들어서 乾亨 4년(982)에 조성된 大同市 출토의 遼代 許從贊 묘에서 사망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넣은 혼병이 발견되었는데(그림 8), 원통 모양의 몸에 구멍이 뚫리는 등 모티브가 서로 유사하다. 혼병은 이처럼 제사후 무덤에 넣거나 아니면 사당에서 제기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그릇받침도 제기였을 것이다.

셋째, 건물이 일상 주거용이라 한다면 건물과 건물을 너무 가깝게 배치해놓은 것은 부자연스럽다. 건물들을 연결하는 통로도 발견되지 않는데, 이것은 각 건물이 독립적으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크기를 달리 했으므로 건물 사이에 위상 차이를 고려한 건축군인 것이다.

이상의 사실로 보건대 이 건물지는 제사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며, 그 배치와 규모로 보아서 구체적으로는 宗廟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건물이 세 종류의 크기로 구분해 놓은 것은 건물 안에 모셔진 神主의 위상과 관련

될 것이다. 7개의 건물지는 한 건물에 하나의 신주를 모신 周代의 同堂同室 昭穆制의 종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달리 後漢代부터 시작된 同堂異室制에서는 일반적으로 西上制를 취하여 서쪽에 시조를 모셨고, 원나라부터 명·청에 이르기까지는 동당이 실제이면서 중앙에 시조를 모셨다고 한다.<sup>44)</sup> 하지만 고려는 당나라를 따라, 그리고 조선은 고려를 따라 동당이실, 서상제를 택했다.

발해 건물지는 古制를 따라서 가운데에 시조를 두고 그 좌우 앞에 세로 2열로 昭穆을 배치한 구조였던 것 같다. 통일신라에서도 신문왕 때에 동당동실 소목제에 따른 7묘제를 채택했다가 혜공왕 때에 5묘제로 바뀌었는데, 2묘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견해가 발굴 자료를 토대로 제시되었다.<sup>45)</sup> 발해도 이처럼 동당동실 소목제의 형식을 택하면서 건물을 세로 2열로 배치하지 않고 좌우로 나란히 하되 크기로서 위상을 구분했던 것 같다. 무왕, 문왕, 성왕, 강왕 등의 시호에서 예견할 수 있듯이, 발해는 주나라 왕실을 모범으로 삼은 면이 보이는데,<sup>46)</sup> 혹시 이런 종묘 시설도 그런 사례에 속하는지 모르겠다.

건물 내부는 쪽구들이 있는 후반부와 아무런 시설이 없는 전반부로 나뉜다. 이것은 前廟後寢의 이념에 따라 공간이 구분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後寢에 해당하는 곳에 쪽구들을 시설했던 것 같다.

43) 魂瓶에 관한 사진과 자료는 용인대 김길식 교수의 제공으로 알게 되어, 감사를 표한다.

44) 梶川晶啓·田鳳熙, 「한국과 중국의 종묘건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8, 2000.

45) 정연식, 「통일신라의 종묘 건축과 종묘제의 변화 - 독립 북쪽의 대형건물 유구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53, 2011, 85쪽.

46) 송기호, 「대흥무 - 발해를 만든 제왕-」, 『63인의 역사학자가 쓴 한국사 인물 열전』 1, 한영우선생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돌베개, 2003, 143~144쪽.

건물이 일곱 개인 것으로 보아서 7廟制를 택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7묘제가 옳다면 황제의 太廟 형식을 취한 것이다. 사실 발해는 내부적으로 황제의 제도를 채택했으므로,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지에 태묘가 설치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다. 발해 멸망 이전에는 지방에 태묘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한나라 초기에 지방의 郡과 제후국에 황제의 종묘인 郡國廟를 설치한 적은 있지만 곧바로 폐지되었다.<sup>47)</sup> 발해의 종묘라면 당연히 수도에 두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발해가 멸망한 뒤에 遺民國家에서 세웠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사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발해 후기나 멸망 이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편년된다. 월 주요 청자도 10세기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여진 토기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금나라 영향이 이곳에 미치지 전에 해당한다. 또 이 건물지 아래에서 그 이전, 아마도 발해 멸망 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초 시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미 토층 조사에서도 전후 두 개의 문화층이 드러났다.

따라서 유민의 활동 근거지였던 이곳에 上京의 태묘를 모방하여 설치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성의 제일 중심부에는 행정관청이 들어서게 마련인데, 여기서는 태묘 시설이 들어선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이 유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증하기 어렵다. 예.이. 깎만이 10세기에 존속했던 定安國을 염두에 두었지만,<sup>48)</sup> 정안국의 활동 지역인 압록강 일대와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이에 비해서 발해 멸망 직후 安邊府의 활동이 주목된다.

(天顯元年:926) 二月庚寅, 安邊鄭頡南海定理等府及諸道節度刺史來朝, 慰勞遣之. … 三月 … 己巳, 安邊鄭頡定理三府叛, 遣安端討之. 丁丑, 三府平. 壬午, 安端獻俘, 誅安邊府叛帥二人. (『遼史』 권2, 太祖本紀 하)

926년 1월에 발해가 멸망하자 20여 일만에 안변부, 막힐부, 남해부, 정리부 등이 朝聘하여 臣服을 표시했으나, 다음 달에는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 거란에 의해 평정되고 안변부의 지도자 두 명은 처형되고 말았다. 이 뒤의 상황은 더 이상 역사서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안변부의 소재지로 여겨지는 곡샤로프카1 성터에서 발굴된 태묘 유적은 바로 그곳에서 反遼鬪爭이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해준다.

瓦屋이 아닌 茅屋이었던 것은 『左傳』의 ‘淸廟茅屋’ 즉 태묘를 띠로 지어 근검을 보인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경황이 없던 시절에 임시적으로 지은 것으로 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사실 유물이 빈약한 것은 이 건물이 그리 오래 사용되지 않았던 것을 반영할 수도 있으며, 발굴시 소토가 대량으로 발견된 점으로 보아서 결국 대화재로 소실되어 폐기되었을 것이다.

종묘 시설에 쪽구들이 설치된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다. 이미 지적했듯이 상층 지배층에서 온돌을 사용한 시기는 발해와 조선이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초기부터 온돌이 궁중에 보급된 것이 아니었고, 게다가 조선의 종묘는 고려 제도를 계승한 것이기에 종묘에 온돌 시설이 도입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에 발해는 추운 지역에 근거지를 두어 궁중에서도 쪽구들을 사용했으므로, 종묘에도 이런 시설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당

47) 金容天, 「前漢 元帝期 韋玄成的 宗廟制論」, 『東洋史學研究』 95, 2006, 8~9쪽.

48) E. I. Gelman, 정석배 옮김, 「The results and meanings of the excavations of Balhae Sites in Russian Primorje」, 『高句麗渤海研究』 38, 2010, 261쪽.

의 주인공은 산 사람처럼 여겼기에 후침에 쪽구들 시설을 했을 것이다.

또 세종 21년(1439)에 태조의 어진을 모신 殿閣에 난방을 한 기록이 보이는데,<sup>49)</sup> 전주와 평양에서는 화로에 숯을 피워서 전각 안에 들여놓은 반면에 개성과 영흥에서는 온돌 아궁이에 숯불을 넣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어진이 습기에 상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으니, 지금 전주 경기전에서 온돌 시설을 실견할 수 있다.

이상의 추정은 이 성터의 건물지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건물지의 나머지 부분이 앞으로 발굴되면 좀 더 확실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또 지구물리탐사 결과 이 성터의 남서쪽에서도 담장으로 에워싼 5개 건물지가 나란히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이 또한 발굴되어야 건물지 성격이 더 자세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 4. 맺음말 : 계승성 연구의 단서들

발해가 한국사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국사의 일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점, 발해와 통일신라 사이에 일정한 연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점, 발해 역사가 고려로 계승되었다는 점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래야만 통일신라와 발해를 포괄하는 남북국시대론을 제기할 수 있겠다.<sup>50)</sup>

이 가운데 발해의 고구려 계승성 연구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시했고, 발해와 통일신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른 글에서 이미 밝힌 적이 있으므로,<sup>51)</sup>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하나 덧붙일 것은 콕사로프카1 성터에서 출토된 그릇받침의 유래이다.

북방 지역에서는 이런 그릇받침들이 발견된 적이 없으므로, 외부 문화가 유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중국의 魂瓶 문화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다. 콕사로프카1 성터의 그릇받침은 그 모습이 삼국시대의 원통형 그릇받침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반도 남부와 연결될 수 있는 크라스키노 성터에서도 그릇받침이 출토된 것이다.

2009년에 크라스키노 성터에서 그릇받침이 출토되었다. 보고서에는 두 개의 그릇받침이 소개되어 있다.<sup>52)</sup> 하나는 34구역과 40구역에서 나뉘어 출토된 회흑색 그릇받침인데, 높이 9.1cm, 상부 직경 18cm, 하부 직경 14cm이고 투공이 있다. 다른 하나는 적갈색 연질 臺脚으로서 대각 직경이 30cm이다.

고구려의 그릇은 바닥이 납작하여 따로 그릇받침이 필요없었던 데 비해서 백제, 신라, 가야의 그릇은 둥글기 때문에 그릇받침을 흔히 사용하였다. 따라서 콕사로프카1 성터 출토층과 크라스키노 성터 회흑색 그릇받침은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되는 삼국시대 그릇받침들과 연계시킬 수도 있다.<sup>53)</sup> 한반도 남부의 그릇받침이 新羅道를 통하여 크라스키노 성터에 소개되고, 다시 더 북쪽의 콕사로프

49) 『世宗實錄』, 권86, 21년 7월 17일 「禮曹啓. 參詳諸殿辟容點火之狀. 全州平壤府則熾炭於爐, 分置殿內. 是則非徒溫氣不上, 失火可慮. 開城府永興府則乃於倚障下作突, 其北作竈, 熾炭於外, 以待絕烟氣, 置於竈內, 似爲可矣. 請慶州全州平壤辟容點火, 依開城永興府例. 然小突溫氣, 何能至於辟容上端哉. 乞每年行端午祭時, 權安辟容於櫃, 仍置突上, 至秋夕還安. 從之.」

50) 송기호, 『南北國時代論의 기초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24호, 1992.

51) 송기호, 「東아시아 國際關係 속의 渤海와 新羅」, 『韓國史 市民講座』 5, 일조각, 1989.

52) 동북아역사재단·러시아 극동본소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 『2009년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한·러 공동 발굴보고서』 I, 2011 pp.152~153, pp.197~198

53) 국립김해박물관, 『가야의 그릇받침』 1999

카1 성터에까지 영향을 끼친 결과물로 보이는 것이다. 다만 그릇받침이 삼국시대 유적에서만 출토되고 있고 통일신라로 계승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시간적 낙차가 큰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건축사 자료를 중심으로 발해 문화의 고려에의 계승성 문제를 간단히 다룸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사실 발해는 어찌 보면 한국사에서 점차 떨어져나가는 역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발해는 고려에게 사람들이 주도한 나라이기에 한국사에 속할 수 있지만, 멸망 후에는 일부 유민이 고려로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遼金史에 편입되어 들어가 버렸다. 발해 쪽구들이 금나라에서 계승되어 발전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발해인은 당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賓貢進士科에 응시하였지만, 멸망한 뒤 그 유민은 내국인으로 취급되어 進士科에 응시했던 것이다. 이 단계가 되면 이미 한국사에서 떨어져나간 것이 된다. 다만, 요·금에 항거하다가 실패하면 고려로 투항하여 한국사의 일부를 이루는데 그쳤다. 그러므로 발해에서 고려로 계승된 문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몇 가지 요소에서 고려로의 계승성을 운위할 수 있다. 첫째는 개성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는 山자형 비너이다.<sup>54)</sup> 이 비너의 출토지는 불명이지만, 개성시 고려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서 개성 일대에서 발견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ㄷ자형을 띠면서 비너 머리에 山자 모양의 꽃장식이 독특하게 달려 있는 이 유물은 발해 유적에서만 독특하게 발견된다. 발해 유물이 개성 일대에 출현한 것이다. 발해 영역

이 이곳에 미쳤을 리는 없으므로, 발해와 통일신라 사이에 교류했던 증거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발해 유민이 고려로 들어와 남긴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발해에서 고려로 계승된 산물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한 사례밖에 없어 유보할 수밖에 없다.

둘째는 柱礎裝飾瓦(柱座, 기둥밑장식)이다. 주초와 만나는 부분의 기둥에 도기 장식을 씌워서 기둥이 썩는 것을 예방하면서 장식 효과도 기하는 유물이다. 이런 유물은 발해 궁전지에서 독특하게 발견되는데, 고려 궁전지에서도 출토된 적이 있다.<sup>55)</sup> 1954년에 만월대를 보수하는 과정에 회경문터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sup>56)</sup> 둘레에 연화문을 장식한 것도 발해 것과 상통한다. 따라서 고려의 주초장식와는 발해로부터 배워온 것이다.

셋째는 鬼面瓦이다. 물론 삼국 모두 귀면와를 만들었지만, 이들은 평면적이다. 이에 비해서 발해 귀면와는 입체적 조형물이다. 이런 귀면와도 역시 만월대와 평양 근처에서 출토하였다.<sup>57)</sup> 평양 부근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sup>58)</sup>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드러내면서 코와 눈, 귀 등이 크게 부각된 것이 발해 것과 상통한다. 평양 출토품은 이곳이 발해 영역이었고 발해 기와가 발견된 적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혹시 발해 것일 가능성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개성 출토품은 고려 유물이 분명하니 발해로부터 계승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건축 부재인 고려의 주초장식와, 귀면와가 발해로부터 계승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북한 연구자들이 지적해온 것으로서,<sup>59)</sup> 그대로 수

54) 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1, 1992, 272쪽.

小嶋芳孝, 「開城市高麗博物館で見た渤海のカンザシ」, 『石川考古』, 272, 2002. 12. 25.

55) 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0, 1991, 166쪽.

56) 장상렬, 앞논문 1971, 166쪽.

57) 장상렬, 앞논문, 166쪽.

58) 편찬위원회, 앞책 10, 167쪽.

59) 장상렬, 앞논문 1971, 166쪽.

주영현, 『발해문화』, 1971, 170쪽.

공할 수 있겠다. 이밖에 앞에서 지적했듯이 고려의 外王內帝 이중체제도 발해와 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는 발해로부터 유산을 일정 부분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래에 중국 湖南省 玉琯岩 송나라 건축유적에서 출토된 脊獸도 이런 귀면와와 유사하게 입을 크게 벌린 채 상하 이빨과 혀를 드러내고 있어서,<sup>60)</sup> 발해·고려의 귀면와와 중국의 귀면와의 연계성 여부도 다시 한번 고려해볼 여지는 남아 있다.

<주요 참고문헌>

1. 郭文魁, 「和龍渤海古墓出土的幾件金飾」, 『文物』, 1973-8.
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吉林琿春市八連城內城建築基址的發掘」 『考古』, 2009-6.
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 「吉林敦化市江東·林勝“二十四塊石”遺跡的調查和發掘」, 『考古』, 2009-6.
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化局·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和龍市博物館 편저, 『西古城』, 文物出版社, 2007.
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2009-6.
6. 김동훈, 「2008~2010 연해주 콕사로프카-1 발해평지성 발굴성과」, 『2010년 국내·외 유적조사 성과와 활용』, 국립문화재연구소, 11. 26.
7. 대한건축학회 편, 『한국건축사』, 기문당, 1996.
8. 梶川晶啓·田鳳熙, 「한국과 중국의 종묘건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8, 2000.
9. 송기호, 『한국 고대의 쪽구들 -북옥저, 고구려, 발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10. 송기호,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11. 楊鴻勳, 『宮殿考古通論』, 紫禁城出版社, 2001.
12. 尹張燮, 「渤海建築」, 『韓國의 建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13. 尹張燮, 『新版 韓國建築史』, 東明社, 1998.
14. 이병건, 「발해 24개돌유적에 관한 건축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1. 6.
15. 장상렬, 「발해상경돌등의 짜임새」, 『고고민속』, 1967-3.
16. 장상렬, 「발해건축의 역사적위치」, 『고고민속논문집』 3, 사회과학출판사, 1971.
17. 張鐵寧, 「渤海上京龍泉府宮殿建築復原」, 『文物』, 1994-6.
18. 정연식, 「통일신라의 종묘 건축과 종묘제의 변화 -계림 북쪽의 대형건물 유구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53, 2011.
19.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20. 村田治郎, 「渤海王國の造營尺」, 『日本建築學會研究報告』 15, 1952.
21. 한용걸, 「발해건축의 고구려적성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7-1.
22. 한용걸, 「발해건축의 몇가지 특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8-4.
23.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渤海上京城』, 上下, 文物出版社, 2009.
24. Слепцов И.Ю., Ким Дон Хун, Городище северной платформы (по данным стратиграфии)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проблемы, поиски, решения, Владивосток, 2011 ; 슬랩초프 이.유., 김동훈, 「콕사로프카-1 성터: 북쪽 臺地의 구조적 특징 -층위 자료에 의함-」, 『고대 및 중세의 러시아 극동 -문제, 조사, 해결-』, 블라디보스톡, 2011.

접수(2011. 12. 8)  
수정(1차: 2012. 2. 2, 2차: 2012. 2. 9)  
게재확정(2012. 2. 17)

60) 國家文物局 主編, 『2004 中國重要考古發現』, 文物出版社, 2005, 163쪽.

# Some topics on the study of Balhae architecture, including the nature of the building site excavated in Koksharovka-1 fortress

Song, Ki-Ho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Balhae(698~926) was the ancient state which opened the Nambuk-guk period with the Unified Silla. But Balhae architecture began to included in the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only about 15 years ago, such as the books written by Yun Jang-seop or Ju Nam-cheol.

I discussed four issues related to Balhae architecture in this paper.

First, I criticized the excavation report of 24 stones remains at Jjangdong in Duhua city, and I asserted the ondol site belonged to different period.

Second, I also interpreted that the building found on the tombs no.13 and no.14, in the Longhai burial area in Helong city must be a wooden stupa.

Third, Balhae played some important roles in the history of ondol. It developed Koguryeo ondol in terms of structure, gave an opportunity to the ruling class to adopt ondol for the first time, and passed the heating system down to the Jurchen, the ancestor of the modern Manchurian.

Fourth, the Russian-Korean joint research team excavated seven building sites in Koksharovka 1 fortress from Russian territory these four years, and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e fortress was the center of Anbyeon-bu, one of 15 local government districts in Balhae. I guess this buildings were the royal shrine built by resisters after the fall of Balhae, and the vessel stands found there must be used for ancestral memorial ceremony inside them.

---

Keywords: Balhae, 24 stones remains, wooden stupa, ancient ondol, Koksharovka 1 fortress, royal shrine

---